

북한개발소식

2023 APR

04

통권 210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관광 산업과 선교

탈북민 수기

이끄심-4화

북한뉴스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훈련·항모 전개 반발 추정

서평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관광 산업과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3 APR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관광 산업과 선교

권두칼럼	01	북한의 관광 산업과 선교
칼럼_1	10	남성욱 _ 북한 관광산업의 실상과 전망
칼럼_2	16	민경태 _ 북한의 관광산업과 발전 가능성
칼럼_3	21	중호 H _ 북한 관광을 통한 북음통일 전략에 대한 소고
탈북민 수기	28	김서윤 _ 이끄심-4화
북한뉴스	35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훈련·항모 전개 반발 추정
서평	37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북한 기도 제목	40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2012년 여름, 노동신문에는 흥미로운 사진들이 실렸다. 바로 룡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이였다. 신문에 5페이지 분량으로 실린 여러 사진들 중에는 부인 리설주와 함께 유원지를 관람하는 김정은의 모습도 담겼다. 과거 북한 지도자들이 매체를 통해 보여주었던 모습과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관광 및 위락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관광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문수물놀이장 및 마식령 스키장 등 각종 관광 시설 건설을 추진했다. 이러한 지도자의 방침에 따라 북한은 각종 관광개발구를 지정하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열을 올렸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북중 관계 개선과 맞물려 2019년 기준 26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년간 모든 대외 교류를 중단한 북한이지만,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가고 있는 만큼 김정은이 역점 사업인 관광산업도 다시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강화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효과적인 외화벌이 방안으로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은 전보다 더욱 커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관광 산업 활성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특별히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 관광이라는 일종의 인적 왕래 확대 기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북한 관광 산업의 역사적 흐름,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선교적 관점에서의 접근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 관광 산업의 역사적 흐름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 북한은 관광 산업 육성에 별다른 열의와 관심이 없었다. 50-60년대 북한



〈룡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서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는 김정일의 모습(사진=노동신문)〉

에서는 관광을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일종의 오락과 구경으로 생각했다. 이 당시 관광은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과시 등 정치적 목적으로만 추진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적 병폐가 북한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북한 관광은 단절하였고, 일부 사회주의 국가나 비동맹 국가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만 추진되었다. 국내적으로도 관광은 여가의 개념이 아닌, 김일성의 항일유적지 방문 등 답사와 견학 목적으로만 의미를 지녔다. 그렇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관광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84년 합영법이 제정되면서 북한 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처음으로 허용하였는데, 관광 산업은 그 집중 육성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북한 당국의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이렇게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했던 배경에는 점차 심해지는 경제난에 대한 대응 외에도 타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쿠바의 경우 82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중국의 경우도 중외 합작경영기업법을 제

정하고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등 개방과 시장경제원리의 일부 도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앞선 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는 북한 지도층이 가지고 있었던 관광을 통한 외부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고,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합영법은 북한 당국의 과도한 간섭, 관련 제도의 미비, 열악한 사회 인프라 등이 맞물리면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관광 산업도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관광 산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관광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은 다시금 증폭되었다. 먼저 89년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로 인한 피해는 관광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88올림픽의 대응 성격으로 개최된 이 행사를 위해 북한은 순안공항 확장, 유경 호텔 건설, 능라도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을 진행했고, 참여자들에게는 체제 선전의 성격을 가진 관광도 이루어졌다. 즉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사 유치 및 개발은, 그렇지만 사회주의 계획 경제 특성상 수익으로 회수되지 못했고, 곧 이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다. 혹자는 이때의 손실이 이어진 ‘고난의 행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적인 경제난 속에서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소련 해체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 상황 게다가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관광이

체제와 사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폭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더욱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의식 통제를 중시하면서,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 시기 김정일이 직접 창작 지도를 한 것으로 선전한 북한의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적 난관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내려는 주인공의 삶을 보여준다. 이 연극에서 주인공인 강산옥과 대립하는 주인공의 동생 최광천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편하게 살아가자는 자본주의적 관점을 드러내지만 이는 주인공에 의해 비판받고, 대신 지도자의 영도 아래 단합하여 ‘우리 식대로’ 상황을 타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연극에서도 당시 관광 개방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

그렇지만 김정일 집권 후기에는 이러한 기조에 일부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민족 우선 담론을 바탕으로 남한과의 금강산 관광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서방이나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과의 협력이라는 당위성을 챙기면서 별다른 투자 없이 남한의 자본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일 남한 관광객에 대한 북한의 총격으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중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한 장면〉

단되기까지 10여 년간 총 1,934,662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남한과의 관광 협력이 중단되었지만 이미 관광을 통한 외화 벌이를 경험한 북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으로 눈을 돌렸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2010년부터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급증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북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광이 가진 경제적 효과를 활용하고자 시도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이 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김정일의 집권 이후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관찰된다. 관광을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관광 산업을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보는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수익과 경제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묘향산 트래킹과 캠핑, 평양국제마라톤 연계 관광, 평양시내 도보관광, 여러 열차 여행 상품, 국경지역 당일 관광 등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레저, 체험, 휴

1 장영주 (2022), 북한의 관광산업, 서울=도서출판 선인, 159-163.

식, 그 외 다양한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신흥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정 확보용 유료 관광이 권장되었고, 단순 견학, 참관이 아닌 레저와 휴식을 위한 관광이 활성화하였다.

북한은 관광지 개발에도 애쓰고 있다. 2013년 10월 15일 문수 물놀이장을 준공, 개장하였고 2014년 1월 1일에는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4개 경제개발구 지정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5곳의 관광개발구가 포함되었다. 19년에는 삼지연군을 시로 승격시키고 기존의 혁명사적지 뿐 아니라 주거, 관광인프라 건설을 확대했다. 20년에는 평남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개장하였고 22년에는 원산갈마지구의 외관을 대부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북한은 최근까지도 관광 산업에 적극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관광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

북한이 관광 산업에 주목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관광 산업의 개발 용이성을 꼽을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발전시켜왔으며, 자급자족형 경제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 낮고 영토가 좁은 북한의 상황에서 자급자족적 경제발전은 고비용-저생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이 8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고, 여기에 90년대 고

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위주로 퇴보했다. 현재도 대북 제재로 인한 원부자재 공급 부족과 설비 투자의 한계로 제대로 된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² 이런 맥락에서 관광산업은 여러 면에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산업이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 산업의 유발 효과가 북한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관광 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나 전기 등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이미지 개선 등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이 가진 본연의 장점이 북한이 처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대북 제재의 강화 역시 북한이 관광산업에 힘을 쏟도록 만들고 있다. 관광 산업의 경우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통한 즉각적인 외화 획득이 북한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이 관광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을 우려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관광산업을 보는 관점은 확실히 바뀐 모습이다. 관광 산업에 정치색을 입히기 보다는 수익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과거에는 개방하지 않았던 지역에 까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례로 김정일

2 앞의 책, 188-195.

시기만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 까다로운 신원 검열 절차를 거쳐야만 했지만, 2014년 김정은 지시 이후 관광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일단 비자 승인을 해주고 이후 검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정치보다는 경제와 산업으로서 관광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 활성화에 다시금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회피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이 단시일에 성장을 이룰만한 마땅한 산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산업이 현 지도자의 중점 사항인 만큼 북한의 관광 산업 육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관광산업 딜레마와 중국의존 확대 우려

그렇지만 북한의 관광 산업의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 산업 개발은 북한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엮인 실타래와 같은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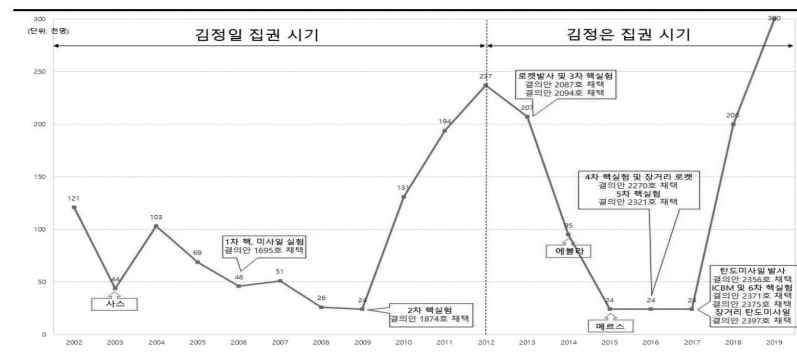
가장 먼저는 최근 보여주는 북한의 사상과 통제 강화 정책 기조이다. 북한은 최근 각종 사상 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강 확립에 애쓰고 있으며,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외부 문화 유입 차단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런 통제 강화 흐름에서 관광산업은 외부로부터 다수의 인적 방문과 그에 따른 영향이 존재하는 만큼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꺼려지는 산업이다. 북한이 관광에 대한 투자를 현재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북한 당국은 관광으로 유입되는 외부 사조의 영향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 등 관광개발구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구비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실 과거 금강산 관광이라는 관광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남한과의 관광 협력은 여전히 매력 있는 옵션이다. 민족 공조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로 관광 산업을 언급한다. 관광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인적 교류를 이끌어내고, 경제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과격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관여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이러한 협력을 추진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오히려 관광 산업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북한 체제가 제재 국면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북미 정상 회담 결렬과 이

〈대북한 중국인 관광객 수 변화 추이(추정)³⁾〉



주 2015~17년 대북 중국인 관광객 수를 유추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가 없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최소자인 2009년의 2.4만 명을 적용

후 미중 갈등 및 새로운 냉전적 국제 정세의 전개는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그간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에 상당히 의존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 시점에서 북한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향후 관광 산업을 재개할 때에도 여전히 높은 중국 관광객 의존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대중국 의존도에 관광까지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고민거리 일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의 북한 관광 규모는 북중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 2000년대 중국인의 2000년대 이후 중국인의 북한 관광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후반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 불안이 야기되면서 북·중 협력이 소원해지고, 관광객 규모도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이를 해소하고 북한을 단체관광목적지(ADS)로 지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뒤, 2010년 4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양국 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4·6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지만, 18~19년 이루어진 5차

례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⁴ 즉 중국인들의 대북 관광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산업이 아닌 정세의 영향 아래 있는 하위 변수의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차장은 대북 관광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분석했다.⁵ 특히 2000년대 이후 대북 관광 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홍수나 에볼라 등의 전염병 방역 등이 이유였지만, 중국의 경우 주로 북한의 1, 3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 표시 및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방중 시기에 맞춘 중단이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관광부분을 활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외화 획득에 중국 관광객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중국이 일종의 무기화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국가 경

제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에 있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한도 대중국 의존이 더 심화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관광지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여행지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상태이고 유럽 등에서도 북한을 위험한 여행지로 인식하여 코로나 이전부터 관광객 수 감소를 겪었다.⁶ 관광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관광 대상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데 북한은 계속된 군사 도발과 수시로 발생하는 외국인 억류 사태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을 겪어왔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안전한 관광지로서의 대외 이미지 개선 및 각국과의 원만한 관계 개선 등을 필요로 한다는 뜻인데,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국제관계 등과 연관된 정치적 이슈가 된다.

이러한 북한의 관광 산업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통일교육원 권숙도 교수는 3가지 딜레마로 정리했다.⁷ 첫째,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광산업

자체가 가지는 딜레마이다. 관광산업이 성공할 경우 체제 약화의 위험성이 있고, 실패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체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제재를 극복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관광산업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한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확대와 단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북한의 관광 산업 활성화는 단순 경제와 산업 이슈를 넘어서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의 국가적 행보에 대한 고민과도 맞닿아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딜레마들은 다른 말로 하면 관광 산업의 부흥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의 관광산업이 예상 외로 큰 성과를 거두고 북한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에 뛰어들게 된다면, 북한이 대외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강경한 군사행보 보다는 평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관광지 개발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 곳곳을 수시로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외국인들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북한의 관광 산업의 육성, 발달이 북한의 국가 전략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그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유럽 관광객에도 영향…특별보험 요구”, VOA 2018.01.16. <<https://www.voakorea.com/a/4209038.html>>

7 권숙도 (2020),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관광산업: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권 2호, 2020년 10월, 155~184.

선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관광산업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에게 앞서 언급한 여러 딜레마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중에서 핵개발이나 국제 정세 변화를 도모하는 일은 북한의 행보를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고려할만한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코로나 직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당장의 높은 대중의 존도를 감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선교적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을까? 한국 교회 입장에는 제약이 많지만, 세계 교회의 관점에서는 북한 선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관광의 문을 연다 하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북한으로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세계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접근성은 분명 높아지게 된다. 과거에도 북한을 마음에 품은 해외 기독교인들이 관광의 형태로 북한을 방문하고, 그 땅의 폐쇄성과 영적인 어두움을 마주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북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와 사역에 힘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대부분의 해외 교회와 성도들에게 북한은 뉴스에서나 들어본 국가일 것이다. 그렇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 말과 같이 북한과 북한 사람을 직접 보고 접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관광객의 신분

으로 어떤 직접적인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세계의 교회들이 관광을 통해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위치한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선교의 기틀을 닦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가 해외 성도들의 이러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북한을 향한 마음과 그 사명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향후 북한 선교 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 및 제3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주목하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전반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근 북한의 정치적 태도로 미루어볼 때, 그 동안 선교의 주축이 되었던 서방 국가 출신 및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데에는 한동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그 외 제3세계 국가의 교인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북한을 관광객으로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북한 노동자나 비즈니스맨이 해당 지역으로 파견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런 경우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은 북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동안의 북한 당국이 시행해 온 파견 노동자에 대한 사상 교육이나 통제 양상을 살펴보면 한인 선교사와의 접촉을 매우 금기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가해왔다. 그렇지만 현지인과의 접촉은 그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단속도 어렵고 의심살만한 구석도 적다. 한국교회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북한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 교회들이 북한을 알고 북한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품도록 하는 일에 북한 관광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통적인 방식의 대상지역에의 거주를 통한 선교 사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북한 선교현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교회가 직접적인 북한 선교에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들 교회들이 북한을 선교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북한 선교의 지평이 상당히 넓어지는 일이 될 것이며, 북한의 관광 확대가 그 계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하며

앞에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나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의 교회들은 그간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선교 대상국으로 주로 인식되어왔다. 그렇지만 북한 선교를 놓고 볼 때 이들 지역의 교회들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 앞으로는 이들 교회가 중요한 북한 선교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여전히 한국 교회에 이들 지역 성도들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동역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픈도어선교회가 사역하는 박해받는 교회들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서구권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결단과 헌신과 같은 신앙의 보배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자신들도 심각한 차별과 박해 속에 지내면서도 북한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해외 교회와 형제들의 소식을 듣곤 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고전 1:4) 하나님의 역사는 북한과 북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일어나고 있다. 관광이라는 형식으로 열릴 북한의 문이 많은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북한을 품고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또한 북한이 관광 산업 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로서 주목된다. 언급된 바와 같이 대외 이미지 개선과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쟁과 군사도발, 악의 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평화와 환영의 국가상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간접적인 인적 교류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관광 산업이 북한의 국가 운영과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

북한 관광산업의 실상과 전망

남 성 욱 교수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북한 관광의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북한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체제 홍보 차원에서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3년이 지난 1956년부터 관광사업을 시작했다. 1970년대 까지도 주민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북한 여행을 자본주의의 타락한 형태로 백안시했다. 198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해지자 외화 수입 증대 수단으로 대외 관광사업에 관심을 두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및 관련 시설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북한 관광 정책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50년 7월~91년 12월)는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1953년 8월 여행관리국 및 조선국제 여행사를 설립하고, 87년 9월에는 유엔관광기구(UNWTO)에 가입하면서 국제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 비로소 일본인에 대해서 북한 관광을 처음으로 허용했으며 91년 5월에는 북·일 간 전세기를 운행했다. 이어서 88년 금강산국제관광회사를

설립하고 91년에는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 지대로 선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선언했다.

제2기(1991년 12월~2011년 12월)는 '90년대 이후다. 1996년부터 원산·해주·청진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단체 여행자를 위한 관광 코스를 개발했으며, 98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로를 통해 북한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 2003년에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관광이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개성관광이 시행됐다.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금강산·개성 관광은 중단되고 있다. 2010년 4월엔 중국인 단체의 북한 관광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며 평양~상하이(2011년 7월), 평양~쿠알라룸푸르(2011년 8월) 항공 노선이 개설되는 등 타국과의 관광교류를 시작했다.

제3기(2011년 12월~현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다. 2012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은 여권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2013년엔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북도 동림군, 신의주와 회령 등이 외국인에게 개방됐다. 2014년에는 평양에 관광대학을 설립해 인력 양성 등 교육적 노력과 함께 마식령스키장·문수물놀이장(2013년 개장), 갈마비행장 리모델링 등 신규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13개의 지방특구를 지정하면서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지구, 황해북도 신평군지구, 함경북도 온성섬지구 등 3개 지구를 관광특구로 선포했다. 김정은은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주력하는 관광지역은 금강산·원산 국제관광지대로 2025년까지 우리 돈 8조 5000억원(약 78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개발에 착수했다. 북한이 주목하는 해당 지역은 140여 개의 역사유적, 10개의 백사장과 호수, 680여 개의 관광명소, 4개의 광천자원과 330만의 감탕(온천)자원이 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한 방문객은 2011년에 중국인이 19만4000명, 서구세계가 6000명, 2012년에 중국인이 23만7000명, 서구세계가 2200명, 2013년에 중국인이 20만7000명, 서구세계가 6134명, 2015년에 중국인이 10만명, 서구세계가 4934명, 2016년에도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2017년엔 제재로 인해 급감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로 완전 중단되었다.

북한 관광엔 양면성이 있다. 새롭고 독특한 체험을 하려고 영파이어니어투어스 여행사를 통해 2016년 초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가 집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은 북한 여행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에 호기심이 많았던 22세 젊은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사주를 받아 호텔에 붙은 정치선전물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1년 6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 평양과 학기술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으로 [평양의 영어 선생님(원제 Without You, There Is No Us: Undercover Among the Sons of North Korea's Elite)]을 펴낸 한국계 미국 작가 수키 김은 [워싱턴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여러모로 비극입니다. 매년 5000명 가량의 서구 여행객이 북한을 방문하며, 그중 약 5분의 1이 미국인입니다. 웬비어 사건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경우입니다. 웬비어의 죽음은 대북 외교의 처절한 실패를 상기시키는 사건이자, 미국 시민을 억류하는 것이 북한에 이득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사건입니다. 대학생에 불과한 웬비어는 북한 관광을 떠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웬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 VOA)〉

북한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북한 관광이 매우 불편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소외된 북한 주민에게도 문이 열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평범한 북한 주민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평양 관광 자체가 선전용으로 정해진 관광지 몇 군데를 둘러보는 것이고, 안내원 외의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행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알려졌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경찰국가에서의 위험은 감춰져 있고, 예측할 수도 없다. 2500만 명의 주민이 포로처럼 갇혀 있는 거대 수용소 같은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관광의 즐거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을 관광하는 것은 나치 치하 아우슈비츠를 산책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관광의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은 관광수입이다. 비판론자들은 “외국인 관광은 매년 북한 정권에 43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안겨주며, 이 돈은 주민을 탄압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데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북한 관광에 반대한다. 현

재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 금지령을 발동 중이며, 웬비어가 이용했던 북한 전문여행사인 영파이어나어(Young Pioneer)는 미국인 고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한편 미지의 세계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한다. 북한 관광도 다양한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호기심과 중국인들의 이념적 측면의 홍색(紅色)관광이 어우러진 결과다. 중국 정부는 2018년 11월 말 베이징·산둥에 한해 한국인 단체관광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동시에 라오닝·지린성을 뺀 타 지역 거주자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당시 미국은 방북 대학생 웬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도 북한 여행 자제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중국은 이들 국가가 여전히 북한 여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제한을 푼 것이다. 석탄·광물·수산물·섬유 수출 등 외화벌이 수단이 모두 차단된 북한에 숨통을 틔워 준 셈이다.

북한 관광에서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인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하반기까지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트럼프·김정은, 김정은·시진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선 ‘사드 보복’ 차원으로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이후 여전히 전세기 취항이나 단체관광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였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전면적 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 관광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들 중에는 라오닝(遼寧)성 내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동북3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베이징 및 상하이 등 원거리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중국이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부르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도 자신들의 젊은 날을 추억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 일부 노병들은 1950년 11월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의 묘소가 있는 평안북도 회창군을 방문한다.

주말에 평균 40인승 버스 10대 이상이 출발하는 신의주 당일 관광은 소득수준이 올라간 중국인들에게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오전 8시에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 시내 관광을 하고 오후 5시쯤 단둥으로 돌아오는 당일 관광 평균 비용은 790위안(약 15만원)이나 실제 관광 기념품을 구매하는 등 옵션 품목까지 계산하면 20만 원 정도다. 북한 관광에 나서지 못하는 단둥(丹東) 방문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북·중 변경 관광비용은 100위안(약 1만7000원)이다. 오전 8시30분 마오쩌둥 동상이 있는

단둥역에서 모여 항미원조기념관, 월랑도, 어적도, 구리도, 통군정, 여자병영, 발전탑, 장군별장, 하구경구, 호산장성, 일보과를 보고 단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압록강변에서 배를 타고 북한 측을 관람하는 상품이다. 강은 국제법상 국경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북측 연안 쪽으로 바짝 배를 대고 담배 등을 북측 경비병에게 던져 주기도 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의주에 도착하면 체류하는 관광원구는 2015년 여름 단둥중국국제여행사가 5000만 위안(약 89억원)을 투자해 압록강대교 인근 연안에 조성했다. ‘북한 신의주상륙관광원구(朝鮮新義州登岸遊園區)’는 쇼핑과 식사 등 부족한 신의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압록강 일부를 메워 만든 간척지 위에 건립됐으며 ‘신의주상륙관광원구’는 ‘신의주압록강안관광지’를 일컫는 중국 측 명칭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당시 “조선묘향산여행사와 단둥중국국제여행사 간의 협력으로 압록강 연안에 건설된 관광봉사구역에 현대적인 종합봉사기지가 꾸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개장식에는 이응철 북한 국가관광 총국 부총국장을 비롯한 관계 일꾼과 중국 측 관계자와 관광객들이 참석했다. 대지면적 총 13만㎡ 중 1단계로 건립된 8000㎡ 규모의 건물엔 북한별미식당, 불고기집, 북한농수산물판매장, 국제면세점, 커피숍 등이 들어섰다. 단둥중국국제여행사 측은 “단둥과 가까운 동북3성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모집해 신의주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북한에 호기심을 가진 중국인이 예상외로 많다”고 밝혔다.

북한은 관광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본격적인 외화벌이의 물꼬를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북제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카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국은 북한의 요청을 수용해 9월 16일부터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였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 후 발표된 전향적인 조치다.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9·9절에는 리 상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며 북·중 우호를 다졌다. 중국은 리 상무 위원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경제건설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화색지대’인 관광 분야를 통해 일차적으로 북한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가 현장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중국 고위층의 지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 방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인 관광 수익이 북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만큼 관광이 선두에 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받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외화를 벌 방법은 관광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틈새시장’을 뚫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관광 상품은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한다는 입장으로 시내 항공(헬기)관광, 평양 국제마라톤대회, 대동강 불꽃놀이 상품 등 과연 사회주의 북한에서 가능한가란 의문이 드는 특이한 상품도 부지기수다. 예를 들어 헬기 등을 이용한 40분간의 평양 저고도 비행 프로그램에는 Mi-17은 195유로, 자이로콥은 90유로의 요금을 받는다. 북한 전역 일주 프로그램인 An-24(또는 IL-18)은 495유로다. 1시간 짜리 평양~원산 간 왕복 프로그램은 IL-18과 Tu-134 기준으로 175유로, IL-62와 Tu-154는 300유로다. 1인당 요금을 명시하곤 있지만 최소 10명은 돼야 탑승이 가능할 것 같다. 누가 저런 비싼 요금을 내고 구닥다리 고려항공을 탈까 의심이 들지만 소련제 항공기에 로망이 있는 유럽 지역에서 평양을 방문한 ‘항공기 덕후들’을 상대로 한 상품으로 추정된다. 2012년에는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타기 관광도 출시됐다. 낡은 이념을 내세운 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코리아콘솔트는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관광 상품’, 영파이어니어투어스는 2011년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 상품’ 등을 각각 판매했다. 2012년에는 평양아마추어 골프 관광 상품도 판매했다. 2016년엔 원산국제공항에서 에어쇼를 관람하는 상품도 출시됐다.

전 세계에는 20여 개의 북한 전문 관광여행사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여행사를 꼽는다면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고려여행사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여행사, 스웨덴의 코리아 콘솔트 등이다. 대략적인 관광비용은 중국 베이징까지 오가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13박14일에 4000달러



〈2019년 평양 국제 마라톤 경기대회에 참여한 외국인 참가자들이 류경호텔을 지나 평양 시내를 달리는 모습 (AFP=연합뉴스)〉

(약 434만원), 9박10일에 3000달러(약 326만원), 5박6일에 2300달러(약 250만원)로 한국 관광 상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한국처럼 덤핑 관광이 없고 희귀성 관광 상품을 통제함에 따라 한국 관광 상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북한여행상품은 국제관광박람회에도 등장했다. 2018년 8월 태국 국제관광박람회(TITF)가 열리는 방콕 쿤시리킷 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 북한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태국 여행사의 홍보 부스가 자리 잡았다. 북한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배경으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실물 크기 사진이 부스 앞을 장식했다. 북한 여행 상품을 26년간 취급했다는 이 여행사는 홍보 부스와 여행 상품 전단에 ‘처음 만나는 북한’ ‘북한 세상을 연다’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관광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여행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4만9900바트(약 170만원)짜리 4박

6일 상품부터, 7만2900바트(약 248만원)짜리 7박9일 상품까지 모두 다섯 가지 북한 여행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주로 방콕에서 중국 베이징이나 선양까지는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이나 저가 항공사인 녹-스쿠트 항공편을, 중국~평양 간 이동에는 고려항공 여객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 관광업계의 격전장인 TITF에 북한 상품이 판매된 것은 당사가 처음은 아니다. 다만 ‘북한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홍보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여행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 관광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소강상태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가라앉는다면 북한 관광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해 비핵화를 촉진시킬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틈새를 만들어 비핵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회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북한의 관광산업과 발전 가능성

민 경 태 교수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관광산업의 변화와 최근 동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체제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광을 이제는 외화획득을 위한 산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관광은 대북 경제제재에도 크게 저촉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추진이 용이하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을 봉쇄하기 전까지 관광산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18년~2019년에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었더라도 대북 제재 문제 해결에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관광 개발구를 지정하고 대

규모 관광단지 건설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5년 단위 국가경제발전 계획에도 대외경제 부문 목표로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광지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북한 전 지역의 주요 거점을 관광지대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각도별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립을 결정했는데, 이 중 상당수의 개발구가 관광개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지정과 2015년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무봉국제관광특구 개발 발표도 있었다. 김정은은 관광개발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직접 지방의 관광단지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 현지도하며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정은 시대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북한이 최근 집중적으로 개발한 대규모 관광단지는 원산, 삼지연, 양덕 지구 등을 꼽을 수 있

〈표〉북한의 관광개발구 현황

구분	소재지	명칭	성격	중점 유치산업
중앙급	양강도 삼지연시	무봉관광개발구	전문 관광 개발구	관광
	강원도 원산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함경북도 명천군	칠보산관광개발구		
지방급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관광개발구	통합 관광 개발구	관광휴양, 농업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섬관광개발구		관광, 농업, 무역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관광개발구		관광휴양, 농업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경제개발구	개발구	관광기념품산업, 정보산업, 경공업
	평안남도 속천군	속천농업개발구		관광, 수출가공, 농업, 무역
	자강도 만포시	만포경제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현동공업개발구		
	양강도 해산시	해산경제개발구		

자료: 김영희,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동향,” 『KDB북한개발』, 2020.6. 통권 22호, 한국산업은행, p.116.

다. 원산 지역에는 명사십리를 포함한 여러 해수욕장과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으며, 삼지연 지역은 백두산, 리명수 폭포 등의 자연 명승지를 보유하고 있다. 양덕 지역에는 온천을 테마로 한 휴양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관광지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산 지역은 한국 관광객, 삼지연 지역은 중국 관광객, 양덕 지역은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유리하다.¹ 양덕 지구는 2019년 말 완공되어 북한 주민들이 온천 휴양소를 활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2019년 4월이었던 당초 완공 목표가 두 번 지연되어 2020년 4월로 조정되었으나 아직 완공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대북제

재 상황에서 일부 자재나 설비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관광객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완공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삼지연 지구는 관광 시설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건설 공사를 진행했는데, 원래의 완공 목표보다 늦게 2021년 12월에 3단계 건설이 완료되었다.

관광 협력 선결 과제 및 정부 정책과의 연계

남북 간 관광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선결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북 제재는 관광 산업 자체를 금지하진 않지만, 합작 및 투자 사업 금지, 대량 현금 이전 금지, 금융적·물질적·기술적 지원 금지 등이 남북 관광 협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면적 제재 유예 또는 완화

1 KDB산업은행, 『2020 북한의 산업 I』, pp. 391-392.

〈표〉 김정은 시대 3대 관광지 개발 사업

구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꾸리기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위치	- 北 강원도 원산시	- 양강도 삼지연시 (19년 12월 승격)	- 평안남도 양덕군
관광 자원	- 명사십리 (천연기념물 제 193호), 울림폭포, 마식령 스키장(2013년 완공)	- 백두산천지(천연기념물 제 351호), 이명수폭포 (천연기념물 제345호)	- 양덕온천(천연기념물 제 442호), 석탕온천 (천연기념물 제48호)
교통 인프라	- 도로 : 평양-원산고속도로 - 항구 : 원산항 - 공항 : 원산갈마국제공항	- 도로 : 삼지연-해산도로 - 철도 : 삼지연선 - 공항 : 삼지연공항	- 도로 : 평양-원산 1급도로 - 철도 : 평라선(평양~라선) - 공항 : 원산갈마국제공항 인접
완공 목표	- 2020년 4월 15일 (태양절)	-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 2019년 12월 완공

자료: 이해정,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관광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 『수은북한경제』, 2021년 여름호, p.19.

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대북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 없이 기업 차원의 대규모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관광을 진행하더라도 군사분계선 통과 및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 허가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남북 간 출입 및 체류 관련 문제를 소통하기 위한 상시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북한 관광 시설 투자에 대한 안정성 보장, 그리고 관광 협력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방역 분야 협력도 중요하다.²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관광협력을 접근해 볼

수 있다. 2022년 11월 정부가 제시한 통일·대북정책 자료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초기 조치로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과 병행해서 ①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②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③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④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⑤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5대 분야의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진대상 분야에 관광협력에 대한 내용이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을 통한 남북교류 확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와 정책적 선결 과제 해결을 가정하면, 북한이 한국 관광객 및 세계 각국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다. 북한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관광명소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호텔·리조트·컨벤션 사업 및 관광·휴양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만약 남북이 함께 협력한다면 관광산업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주민이 관광을 통해 만나 교류하면 서로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관광산업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경제제재, 자연재해 등 3중고를 힘들게 겪어온 북한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앞서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이다.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생개선 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 지원뿐 아니라 첨단 의료기술, 설비 제공,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건설 등 시스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보건·의료 지원은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지 인도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미

래 한반도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보건·의료 협력과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헬스산업 노하우를 접목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국제 의료·휴양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남북이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와 호텔·리조트·컨벤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 협력으로 발전하게 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미래를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사례 구상]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의 미래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원산은 지리적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서울과 평양에서 가까이 위치한 동해안 항구도시로서, 일본과 연계가 용이하며 국제 크루즈선박의 경유지로 개발할 수도 있다. 명사십리와 송도원의 아름다운 해변을 비롯해 주변 관광명소가 많다는 것도 장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내부공사와 조경사업 진행 모습. 언론보도에 따르면 22년 11월 기준으로 해당 관광지구의 외관 공사는 완료 단계인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조선중앙통신)〉

2 이해정,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관광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 『수은북한경제』, 2021년 여름호, pp. 20-25.

북한 관광을 통한 북음통일 전략에 대한 소고

중 호 H (통일선교연구소 대표, 30년 현장사역)

북한관광

통일선교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기

한국인의 기억속에 있는 북한 관광은 지난 1998년 11월부터 현대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실시해 남한주민들이 자유롭게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게 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금강산과 원산의 극히 제한된 구역을 북한이 열어주는 것만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남북교류의 차원에서의 방문이었고 그 마저도 총격사건 이후 아쉽게도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관광이라는 주제를 민족교류 차원이 아닌 통일선교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평화통일과 민족북음화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이 주제를 심층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관광사업을 북한의 통치자인 3부자의 관광에 대한 이념과 전개를 시대적으로 정리해 본다. 김일성 시대인 1954년부터 사회주의 국가 연대의 맥락에서 시작된 국가관광 전략의 출발을 볼 수 있다. 그후, 북한의 관광산업은 1984

년 서방자본의 북한 관광투자를 허용하는 합영법을 만들고 86년 국가관광총국을 신설하였으며 87년 세계 관광협회에 가입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88올림픽에 대응하여 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과 무료관광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결국 고난의 행군을 초래한 빌미가 되었다. 그리고 경제난 타계를 위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과 제한적 관광개방으로의 실험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김정일 시대에는 체재위기 속에 관광 빗장 달기가 이루어지고, 이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300여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김정일은 1997년부터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주창하며 남북한 민족공조를 전개하면서 남북관광 협력을 통한 체제·경제위기 돌파를 시도하였다. 그후 96년 남북관광협력이 중단되자 그 대안 찾기로 북중 관광협력을 시작하였다.

김정은 시기의 관광정책은 이념관광(정치)에서 실리관광(경제)로의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였

이다. 또한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해서 겨울철 미세먼지의 영향도 적기 때문에 휴양 및 요양 시설의 위치로는 최적이다. 관광 산업과 다양한 산업을 접목해 발전시킨 지중해의 휴양산업을 벤치마킹해서, 건강·미용·의료·스파·체육·요양·명상·실버타운 등 다양한 분야와 생태·관광을 결합한 복합 의료·휴양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 미래의 어느 날, 원산 국제 의료·휴양 관광지에서의 일상을 상상해 본다.

“세계 각국에서 수준 높은 ‘K-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경원선 고속철도를 타고 원산에 도착한다. 태평양을 건너온 크루즈 관광객들은 원산항 국제터미널에서 내린다.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조성된 남북협력 의료센터에서 진단을 받고, 통천에 있는 감탕 리조트에서 치료와 휴양을 한다. 자울주행 셔틀로 다양한 치료·휴양시설과 관광지를 둘러보며 명상·힐링·요가·미용·헬스 등 서비스를 체험한다. 한국의 노년층은 아름다운 해변의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노후를 보낸다. 원산 경제특구에는 의료·휴양에 특화된 남북협력 산업을 육성하고 원산항을 통해 수출한다.”³

원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국제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면 정부 재정 투입 없이도 민간 투자

로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원산 경제특구에 특별법을 적용하고 해외 또는 한국인 투자를 허용해 주거·리조트 단지를 분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만약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보건·의료 및 관광 시설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면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남북 협력의 초석으로서 관광산업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경제 발전과 남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은 외화 획득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한국은 북한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주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결국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 교류 확대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권 문제 개선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등의 변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더 나은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 민경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 개발 패러다임,” 『국토』, 2020년 7월호 (제465호), p. 18.

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대안 찾기로
서 세계를 향한 북한관광 빗장 열기를 시도하며
지역개발과 함께하는 관광산업전략이 전개된다.
전국 7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지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중 관광개방의 상징 거점으
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건설 사업을 전
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립경제식 관광개발의 모
델로 ‘삼지연시’를 건설하고 있다. “북한 관광산
업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
정은 시기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관광인식”과
인식의 지속성 및 변화를 시대적으로 요약 분석
해본 것이 위와 같다.

중국을 통한 관광 활성화 곧 다시 전개될 것인가?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을 닫아
버림으로써 북중 간 무역과 관광 교류마저 단절
된 현실이지만, 이 인류적 재앙이 해결의 실마
리를 찾는다면 북한도 다시 세계를 향해 관광의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다시 국경의
문을 열고 무역을 개시함과 동시에 닫아버린 관
광의 빗장도 곧 열개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체제 안정화를 위한 사상강화로 인해
장마당까지 닫아버린 상황에서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징후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지역은 개성특별
구이다. 개성공단과 남북경제협력의 단절로 인
해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사자들이 급증하
고 있어 군사적 비상 양식까지 긴급 투입되는 상

황이라는 것이 내부로부터 알려지고 있다. **둘째**
는 2016년 1월 수소폭탄의 4차핵실험 이후 미
국과 서방세계의 경제재제가 심화되면서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
다. **셋째는** 한국의 보수정권 교체로 인해 북한
이 바라는 형태의 민족끼리의 소통과 협력이 한
층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 현실이고, 이를 돌파
해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렉 스칼라튜
는 ‘자유 북한방송’(FNB)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 2의 고난의 행군에 대해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¹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 봉쇄를 장기
화하면서 지난 3년 넘게 연속 유엔의 인도지
원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북한 당국 통
제, 탄압과 봉쇄에 의해 “제 2의 고난의 행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한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비공식적 시장
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동을 허용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다른 나라와 국제
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가장 취약한 주
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또 국제
기구와의 투명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북
한 당국이 정치, 사회, 경제 개혁과 개방의 길
을 선택한다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1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인터뷰 (워싱턴:
자유아시아방송 2023. 2.13) [https://www.rfa.org/korean/
in_focus/85024-20020708.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85024-20020708.html) (accessed 2023. 3.19)



〈Korea Konsult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평양관광상품〉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 여행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고려투어’(Koryo Tour)의 대
표는 “북한이 코로나 후 여행객들을 허용하는
마지막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들은 코로나 기
간 중에도 북한을 방문하려는 광객들의 수요
는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케렐 대표는 “북
한 관광이 고려투어 수입원의90% 이상을 차
지한다”면서 “항상 탄탄한 수요가 있어왔다”
고 하였다. 여행 담당자도 “북한 관광이 재개
됐는지, 갈수 있는지를 묻는 연락을 매일 받는
다”며 “현재 대기자 명단이 있으며 이들은 북
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면 선착순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²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인 Korea Konsult 는 회
사 홈페이지에 2023년 4월의 태양절과 평양국
제마라톤대회를 기점으로 평양관광 상품을 홍
보하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안정과 인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신속히 국경무역부터 재
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국경

2 자유아시아방송 기사 (2022. 11.24 일자) [https://www.rfa.
org/korean/in_focus/85024-20020708.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85024-20020708.html) (accessed
2023. 3.18)

보따리 무역과 장마당의 활성화로 고난의 행
군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통치자의 역
량으로 국제관광 재개를 시도하는 방식의 돌
파구를 선택하여 민심을 얻고, 체제 안정을 도
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
장 극심한 기독교 탄압 1위 국가가 되어있는 북
녘 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랑으로 품
고 그 땅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전략적
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는 지속적으로 “북한관광을 통한 통일선교”라
는 시대적 전략으로서 의 북한탐방을 의미있게
탐구해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³ 1) 제3국에서 일어난 북한관광 기 도운동

창수의 눈

나는 눈바람이 날리는 초겨울 압록강의 산 위에
올랐다. 늘 듣기만 하였던 의주 들판을 눈 아래
바라보았다. 코끝이 찡하며 눈물이 바람결에 흩
날리며 불을 적시고 날아가고 있었다. 연암 박지
원이 고려문을 지나 언덕위에 올라 넓디 넓은 만
주 벌판을 처음 바라보며 느꼈던 바로 그 벅찬
감격의 눈물이 내 불에 연신 흐르고 있었다. 처
음 중국에서번역된 조선어 성경이 보부상의 지
계를 통해 이 강을 건너 저 벌판 넘어로 전파되

3 아래 내용은 이 연구의 특성 상 글의 내용을 논픽션 1인칭 소설체
로 기록하였습니다

기 시작한 이 곳, 언드우드가 신혼기념 여행으로 강에서 배 띄우고 물위에서 첫 세례를 베풀었던 그 압록강 물결을 바라보며 나는 찬양하기 위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주여~!”를 외치는 순간 내 손을 가로채며 끄는 한 남자의 우직한 손길 ... 그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서자 아 ~ 거기에 두손 들고 나직한 탄식으로 기도하는 한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틀째 금식하며 조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다. 몇 일간 이 무리들과 주안에서 형제애를 나누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들은 벌써 수년째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헌신자들이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세 시간씩 함께 모여 북녘 땅을 위해 중국어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공동체였다. 30여 명이 건물 뒷편 방음이 잘 된 공간에서 모두 무릎 꿇고 북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 감동이었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 이틀간은 북녘을 바라보며 산골짜에서 금식 기도하는 여호와의 군대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그들은 매년 서너 차례 단체로 북한관광 여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여리고성 돌기”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물도 북조선 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사용하도록 3층 건물로 길고 복합적으로 지어졌어요. 당신은 언제 오셔도 환영입니다.” **그 팀의 리더 중 한 분은 벌써 북녘땅**

기도팀을 이끌고 백여 차례가 넘게 강을 넘나들었던 북한관광 전문가였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공동체의 한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2년간 해외사역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 선교사훈련원은 벌써 18년전에 세워져서 수백명을 국내외에 파송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100% 중동 이슬람을 품고 헌신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만은 기어코 다른 소명을 고집하고 있어요.

우리 팀의 훈련과 사역은 서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서 이 부부를 우리가 돌보고 지도할 수가 없어요. 당신에게 위탁합니다. 잘 도와주세요.” 훈련 원장의 부탁이었다. 수년이 지나고 이 팀의 기술자 몇 명은 벌써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여러 명이 무역 일군으로 왕래하고 있다.

기도의 일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인신매매로 팔려온 가련한 여성들은 여러 어려

움에 처해있고 때론 쫓겨나 유리 방황하고 있기도 하다. 언제 끌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도망쳐 나와도 마땅한 거처나 갈 곳이 없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긍휼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일들도 이분들의 사역이 되어 있었다. 애쓰고 있지만 늘 조심스럽고 힘겹기는 서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천

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얼굴을 보는 설레임으로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또 산속을 향하는 그 뒤 걸음을 보는 창수의 눈에도 안개가 끼었다. 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밤, 낮으로 강을 건너 다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창수는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2) “북조선에 전도하라” - 2번의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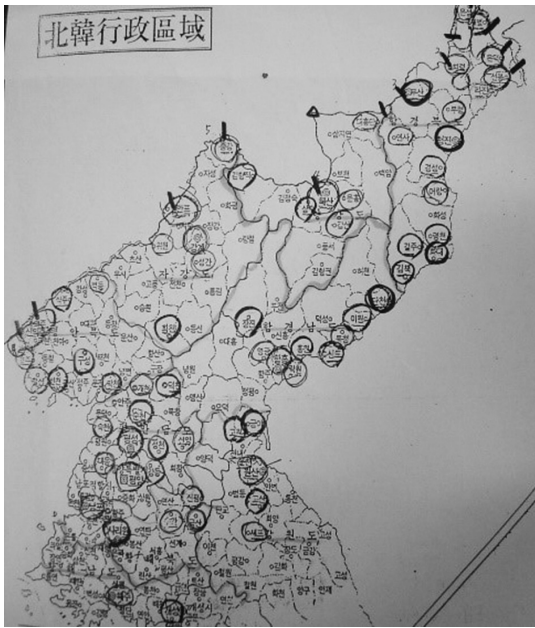
영수의 눈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운동주의 고향 동명마을 일대에도 큰 핍박의 환란이 덮쳤다. 교회의 영수(領袖)인 아버지를 군중대회를 통하여 고문하고 돌과 족창으로 죽이는 어마 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저놈 처죽여라”는 함성속에 밧줄에 거꾸로 매달려 고춧물을 코에 집어넣는 고문을 받으며 돌에 맞아 죽었다. 8남매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둘째 딸이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 이미 남편에게는 첫 부인이 있었다. 기막힌 일을 당하고 1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고문으로 허리를 심하게 다친 어머니와 그 딸은 부둥켜안고 울며 한달간 함께 금식기도를 하였다. 마지막 날 하늘이 맑게 열리며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일어나 일어나 장백산 넘어 복음을 전하라.” 딸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 6개월 후 어머니에게 돌아온 날, “이제 그 마을에 믿는 무리가 생겨 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 호구(戶口)가 없으니 정착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을 세를 맡아 작은 가게를 열면 임시 호구를 받아 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셋집을 맡을 돈을 좀 구해 봐 주세요.》 그리고 딸은 다시 길을 떠났다.

다시 6개월 후에 집으로 왔을 때, 후에 오빠라 부른 영수를 만났다. 용정조선족교회에 처음으로 한족예배를 시작하던 1992년 1월이었다. 그날 늦은 밤 어머니는 영수를 집으로 몰래 초대했다. 그리고 딸의 소식을 소상히 전했다. 순교자의 가정에 8명의 자녀들이 다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 영수는 영적인 큰 아들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이듬해 교회는 8개로 늘어났다 골짜기 마다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일을 도운 인연으로 자기집에 교회를 모아 예배하는 분들이 영수를 초청해 예배와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강 건너온 보따리 장사꾼들이 교회에서 먹고 자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 조선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네” 그리하여 영수의 북한사역이 시작된다.

3년 후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던 해, 교회는 30여개로 늘어났다. 북녘 땅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강 건너 이쪽 마을에는 밤마다 조선사람들이 건너와 도움을 구하더니, 드디어 장독이 하나 둘 없어지고 옷 가지며 신발이며 보이는 것은 밤새 없어지기 시작했다. 영수는 어쩔 수 없이 이 기막힌 사실을 한국과 온 세계 한인사회에 알리고 이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수첩에 그들의 주소를 3년동안 기록해 보았더니 북한의 일 백 개 군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빼곡히 기록되었다. 굵어 죽은 아사자만 이백만명 이상 그리고 전염병과 가뭄과 홍수, 실종자들까지 삼백만이 죽는 무서운 고난의 행군이 있게 되었다. 그 시기에만 30만명 이상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목숨걸고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이루어졌다.

영수는 7년간 압록강 두만강을 수십차례 오르내리며 중년의 삶을 살았다. 2개의 합영회사를 만들고 수없는 양식지원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을 품었다.

3)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라”—— “나는 못합니다. 주님”

경수의 눈

이것은 더 놀라운 이야기이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라” 경수의 오랜 친구인 중국형제G가 중국의 3차 부흥의 시기인 1980년대 말에 주님의 음

성을 듣게 되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라” 그는 모세처럼 세번이나 손 사례 치며 외쳤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중국복음화도 급한데 조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분은 화를 내셨다.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설사 들어 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주님께 무릎 꿇고 잠잠히 있는데, 마음에 한 생각이 주어졌다. “그럼 국경에 선교사를 보내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리하여 세 가정을 택하여 국경지역 첫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1989년의 일이다. 매년 교인들 수십명이 자원하여 주먹밥을 들고 3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서 국경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을 도와 교회를 개척하였다.

중국과 북한을 건너 다니는 다리가 12개 있다. 압록강에 5개 두만강에 7개이다. 이 다리를 통하여 북한 무역의 30%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을



통한 낮, 밤의 밀무역까지 북한경제의 1/3 이상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강가에 수백개의 형제교회가 세워지고 3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 다리의 무역일꾼들 대부분이 형제교회의 신세대 리더들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형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중국의 중심도시에서 성장하여 대부분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어마무시한 여호와의 군대이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지면에서 나눌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 즉 구원에 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누가복음 19장 10절


마치며

필자는 ‘북한 선교’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남북분단이 70년이 지나고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언어도 문화도 이념도 삶의 환경도 너무 많이 달라진 상황이 되어 있다. 이 현실을 직

시하면 진정한 통일은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서로 적대시하고 경쟁하며 상대를 무너뜨리는 통일의 꿈은 더 깊은 상처로 남아 화해와 용서 그리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참된 통일 코리아를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본다.

참된 통일코리아를 이루는 일은 더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통일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통일 후 통일’을 생각하며 이루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흡수 통일의 사고보다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원원을 할 수 있고 서로를 품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통일도 복음을 전하는 주입식 방식의 접근이라면 그것은 아주 부적합한 사고이다. 참된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품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호의 주제인 “관광을 통한 통일선교”의 사고는 매우 의미있고 긍정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여기며 작은 소고를 통해 함께 참여하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

이끄심

4화 -  알라크 : 고향을 떠나다 (2)

김 서 윤 전도사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여정을 이어갔지만 이 먼 거리를 걸어가 간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해매고 있는 우리를 딱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산행을 반강제적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 날도 영하 30도가 넘는 혹독한 날씨였다. 온 몸이 뽁뽁 얼었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발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온통 흰 눈에 덮인 눈밭만 보였고 인가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발이 너무 시려서 눈 한가운데 쌓아놓은 벚짚단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옷 속에 품어 녹여주었다. 얼음덩이와 같은 엄마의 두 발이 내 배 위로 들어오는 순간 머리끝까지 느껴지는 추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얼어붙은 발을 서로의 품속에 넣고 잠시 동안 죽어가던 세포를 다시 깨웠다. 벚짚 사이에서 추위를 피한 우리는 날이 밝아 올 때쯤 혹시나 사람들이 몰려올까 경계하며

그곳을 벗어났다.

날이 밝아오니 혹한의 추위 속에서 사방에 눈이 온통 반짝반짝 빛났다. 우리의 물결은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지만, 보여지는 매무새나 추위, 배고픔, 고단함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고 그 1차 목적지는 길림성(吉林省) 길림시(吉林市)였는데,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동쪽을 바라보며 산과 마을을 넘고 또 넘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어느 날, 우리는 수백 마리의 닭들이 들판에서 ‘꼬꼬댁’ 거리며 놀고 있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수백 마리의 닭이 뛰어노는 광경을 보았다. 그 닭들을 보며 엄마와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저 많은 닭 중에 딱 한 마리만 먹어봤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림의 떡과 같은 닭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면서 왜인지 모르게 일어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 때 뭔가 물컹한 것이 발 끝에 걸렸다. 눈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얀 눈 속에 닭 세 마리가 죽어 있었다. 내 발이 닿은 닭의 안에서는 생쥐들이 닭 내장을 파먹다가 우르르 도망갔지만, 다행히 나머지 두 마리는 아직 상태가 멀쩡했다. 우리는 서로 번갈아 보며 웬 황재인가 싶어서 죽어있는 닭들을 주워서 탈탈 털어 어머니와 나의 배낭에 넣었다. 닭을 너무나 손쉽게 주운 것이 믿어지지 않아 이것이 웬 떡인가 싶었다. 고맙고 기쁘고 신이 나서 발걸음도 가벼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리고 왜소했던,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자기몸 가누기 힘들었던 나에게 뽁뽁 얼어붙은 닭의 무게는 생각보다 더욱 상당했다. 나중에는 버리고 싶을 만큼 어깨가 무거웠다. 게다가 하필 그 날은 걷고 걸어도 우리가 들어서 몸을 녹일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렵게 매고 온 닭을 그냥 버릴까 했던 그때, 다행히 인적 없는 어느 과수원의 초막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겨울 내내 사람이 머문 흔적이 없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모닥불을 피우고, 초막 주변에 있는 강통들과 솔뚜껑을 주었다. 그리고 밖에 있는 하얀 눈을 떠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어오르자 어머니는 닭의 털을 뽑고, 가지고 다녔던 맥가이버 칼로 대충 닭을 조각내어 삶았다. 뽕얀 국물이 올라오며 닭이 익어가는 향이 얼마나 좋았던지 침을 꿀꺽꿀꺽 넘어갔다. 마침내 닭이 익었다. 간을 맞출 소금 하나 없었지만 닭다리를 하나 잡고 뜯으니 그 순간에는 그 닭다리가 지구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

었다. 얼마 만에 먹는 고기인지... 우리 가족은 닭 비린내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너무도 맛있게, 숨소리도 내지 않고 허겁지겁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경험하는 배부름과 포근함에 취해 기절한 듯이 잠들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모닥불의 불씨가 꺼질 즈음 어머니께서는 몸을 꾸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우리들을 챙기시며, 땀감이 떨어졌던 것을 보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땀감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온통 눈이 가득 쌓인 어둠 속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각목을 불에 때려고 주워서 꺾으시다가 그만 한 각목에 박혀있던 대못을 밟고 마셨다. 어머니의 발은 못에 관통되었고 삼시간에 통통 부어올랐다. 어머니는 천으로 발을 대충 묶고 지혈을 하셨다. 끔찍한 고통이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왔지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몸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이제 어떻게 여정을 이어갈까를 걱정하셨다.

그렇게 한참을 통증과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박 잠드셨던 어머니는 그 잠깐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꿈을 꾸셨다. 잠에서 깨신 어머니는 그 꿈을 생각하시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얻어 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셨다. 중국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과 마주칠지도 모르지만 도박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 북조선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나의 한자 실력이 빛을 발했다. 나는 ‘길림(吉林)’이라고 한자로 종이에 썼고, 우리는 그 종이를 들고 걸어서 강변도로까지 나왔다.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손도 내밀지 못하고 몇 대의 차를 그냥 보냈

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손을 흔들었고, 지나가던 용달차 하나가 우리 앞에 멈추어 섰다. 나는 길림이라는 한자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시계와 기차를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 아저씨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태워 주었다.

아저씨 눈에 우리는 매우 의심스럽고 위험해 보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사람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많은 벌금 등 처벌과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우리 남매들의 모습이 안쓰럽고 딱하졌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으시고 운전만 하셨다. 그 와중에 우리는 졸지도 않고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압록강과 북한이 계속 보였다. 당장이라도 북한 군인들이 넘어와 우리를 데리고 갈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였고 불안했다.

한참을 달리지 마을들이 보였고 우리 눈앞에는 중국 변방대 군인들이 검열하는 초소가 보였다. 검문소에서 모든 차량을 검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아저씨는 예상을 하셨는지 차를 검문소에서 멀찍이 세우시고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 하셨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시며 차 문을 잠그셨다. 우리 마음은 차를 탄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해졌다. 영락없이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된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아저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는 한참을 군인들과 이야기를 하셨고, 다시 차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특별한 검열 없이 그곳

을 통과할 수 있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 아저씨의 표정은 다소 비장하셔서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고 달려 림강(臨江)이라는 도시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중국 도시의 광경에 동생들은 “우와, 우와!”를 연발했고, 길바닥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와 멀쩡해 보이는 굴, 만두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종알거렸다. 하지만 나는 불안하기만 한 것이 도무지 역이 보이지가 않았다. 언어가 통하지도 않으니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고마운 아저씨를 의심하면 안 될 거 같아 내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저편 멀리 뾰족하고 높은 시계탑이 보였다. 그제야 우리가 제대로 잘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아저씨는 기차역 옆 골목에 차를 세우시고 우리를 내려주셨다. 그리고 나와 동생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가라고 손짓하셨다. 떠나는 아저씨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도 못한 채 배꼽인사만 여러 차례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림강시 기차역 앞에서 우리는 난생 처음 도착한 중국의 도시 모습에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그러다가 역 근처에 “림강조선족식당”이라는 간판을 보았다. 국경지역 도시나 마을에는 조선말을 하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간판도 한글로 적힌 것이 많지만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나는 조선말 간판이 신기했고, 오랜만에 보는 한글이 반갑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 식당으로 뛰어 들어갔다. 다른 가족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식당을 향했다. 우리는 우리의 물골 따위는 신경 쓰



〈중국 림강과 북한 중강을 잇는 국경 다리 (2018, 사진=평화문제연구소)〉

지 않고 당당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몇날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 허기진 우리는 식당 안에 모든 것이 신기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다. 그 식당의 주인아주머니는 한참을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어머니! 세상에! 저기... 북조선에서 오셨지요?”라고 물었다. 눈에 보이는 꼬락서니나 말하는 투나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너무 놀란 우리 가족은 동시에 "아니에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딱 봐도 그런데... 빨리 이리 오시오. 지금 여기 이려고 있으면 안되요." 라며 우리를 식당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는 방 하나를 열어주셨다. 우리는 주인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 여관방에 들어갔다. 방에서 엄마의 발을 살펴본 아주머니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며 놀라셨다. 어머니께서는 돈을 좀 줄 테니 진통제를 구해줄 수 있는지 부탁하셨고 아주머니는 알겠다며 문을 잠그고 나가셨다. 한시름 놓은 우리는 따뜻한 방안에서 꾸벅꾸벅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께서 돌아오셨다. 아주머니는 어머니에게 쓸 진통제와 함께 허기진 우리를 위해 죽을 쑤서 상을 차려주셨다. 우리는 죽으로 모처럼 제대로 요기를 했다. 진통제를 드시고 쉬면서 어머니 발의 통증도 점차 가라앉았다. 우리는 오랜만에 깨끗하게 씻고 묶은 때를 벗겨냈다. 입고 있던 옷도 아주 해어지고 엉망이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여러 크기의 옷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다.

한 숨 돌리신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목적지인 길림시를 가기 위해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다. 아주머니께서는 무슨 일로 길림시에 가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거기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얼버무리셨다. 그러고는 다시금 도움을 요청하며 가지고 계시던 돈 얼마와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아주머니께 드렸다. 아주머니께서는 바로 기차표를 구매해주셨다. 다행히 빠른 기차표가 있었지만 이곳은 시골이라 길림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다. 기차의 종점은 통화시(通化市)였는데 그곳에 내리면 다시 한 번 기차를 타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무리 없이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중국의 기차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특히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삶은 차단



〈중국에서 간식으로 먹는 차단(왼쪽)과 해바라기 씨(오른쪽)〉

(茶蛋)을 먹고 해바라기씨를 엄청 빠른 속도로 까서 먹는 모습과 그 소리가 이상하게 재미있었다. 그렇게 쉼 없이 사람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종점에 다다랐다.

이제 다시 기차표를 사야했는데 중국말을 모르니 어떻게 표를 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어떻게 하면 기차표를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역의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 뒤편에서 조선말이 들렸다. “하... 이제 들켰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 안까이(아내)한테 들키지 않게.”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해? 이 동네에서는 이제 더는 못산다.” 조용히 듣고 있으려니 아무래도 내연관계의 커플인 것 같았다. 그 사람들 사정은 알바 아니었지만 조선말 하는 사람을 찾은 것이다. 우리는 그 커플에게 기차표를 구매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쥐어주었다. 그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니 흔쾌히 표를 대신 구매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지 않고, 둘이서 속덕속덕 하더니 자기들도 길림시로 가야겠다며 같이 기차표를 구매했다. 그렇게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내내 우리에게 길림에는 왜 가는지, 친척들이 거기 사는 것이 맞는지, 친척이 연락은 되는지 등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친척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크게 한턱 낼 것이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친척을 찾지 못하게 되면 산둥에 가서 일할 수 있다, 그 곳에는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가 많

다’며 우리를 꼬드겼다. 이미 기차역에서 자신들의 행로를 고민하던 둘의 대화를 뒤에서 들었던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닌 다른 공공이속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을 어디론가 팔아먹으려는 심산일 것이다. 도움을 받았고 우리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때어낼까 고민하였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길림시에 도착했다.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목적지에 한 발 앞까지 온 것이다. 우리 가족과 그 커플은 택시를 잡아탔다. 우리는 친척이 대한민국 영사관 근처에 있다고 돌려대었기 때문에 그 커플은 택시기사에게 영사관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도대체 영사관을 찾질 못했다. 그렇게 도시를 거의 두 바퀴를 돌았지만 헛수고였다. 어머니는 왜 영사관이 없는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안절부절 못하셨다. 이와중에 그 이상한 커플은 우리에게 친척집에 가기 어려워졌으니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여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길림역 모습〉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는 그 커플에게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라며 근처에 조선말로 ‘연희조선족식당’이라고 적힌 간판을 단 식당을 가리켰다. 빨리 볼일 보고 오라는 말에 우리 가족은 그 식당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주인아주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다. 주인아주머니는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를 가게 안쪽 방에 데리고 가서는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고 문을 잠그셨다. 잠시 후, 우리가 도통 나오지 않자 그 남녀 커플이 가게로 들어왔다. 아주머니와 그 커플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커플은 아주머니를 추궁하며 우리의 행방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우리가 왔다가 볼일 보고 뒷문으로 나갔다고 돌려대셨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커플이 아주머니를 수상쩍게 여키며 추궁하자 아주머니는 가게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며 큰소리 치셨고 결국 그 커플은 가게에서 쫓겨났다. 이런 상황을 소리로 듣고 있던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빠진 이후, 아주머니는 우리가 있는 방의 문을 여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난생처음 보는 음식들로 한상 부러지게 차려 주셨다. 그동안 제대로 음식조차 먹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진수성찬에 눈이 뒤집혀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대부분의 음식에는 향신료가 첨가되어 자극적이었고 기름진 음식들로 한 가득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다. 그렇지

만 결국 얼마 먹지도 못하고 포만감과 느끼함에 수저를 내려와야 했고, 오랜 기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과식을 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 모두 배탈이 나고 말았다. 그렇게 차례로 화장실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본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이 차려준 음식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되었다고 속상해 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신 식당 주인아주머니를 우리는 ‘은명이 이모’라고 불렀다. 이모는 식당일을 마치시고도 주로 식당 뒤편 방에서 쉬셨고 본인 집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셨다. 날이 어두워지고, 식구는 많고, 당장 지낼 곳은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모는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주셨다. 건강상태도 좋지 못했고 물골도 말이 아니었던 우리에게 은명이 이모의 친절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모가 마련해준 집에 머물렀고, 나는 식당에서 이모 일을 도와드리며 이모와 함께 지냈다. 이모는 특별히 나를 예뻐해 주셨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모와 나는 저녁도 먹고 쉬면서 이모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곤 했다. 그리고 낮에 식당이 붐비는 바쁜 시간이면 나도 이모를 도와 음식 서빙도 하고 갑자기 필요한 식자재나 물품들을 인근 가게에서 사오기도 했다. 식사 시간이 지나 가게가 한적해지면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나에게 먹이기도 하셨다. 이모는 단골손님들이나 이웃에게 나를 시골에서 올라온 조카라고 소개했다. 이모와 나는 정말 가까운 가족과 같았다.

이모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훈련·항모 전개 반발 추정




북한이 3월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지난 21~23일 수중드론 형태의 핵어뢰로 평가되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을 발사해 폭발시험(23일)을 한 지 나흘만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쏜 지 8일 만의 도발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3월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18~19일 '핵반격가상종합훈련'을 통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을 발사했고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 동작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23일에는 수중 핵어뢰 '해일'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남한에 핵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지난 12~23일 진행한 전반기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행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20일 시작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쌍룡훈련은 한미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하는 사단급 규모 상륙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1만4천500t급),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LHD-8·4만2천t급) 등을 동원하는 연합상륙훈련이다.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라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점차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 3월 27일 연합뉴스 외 언론보도 종합) 




〈3월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조선중앙통신)〉

남편과는 이혼하고 딸을 홀로 키웠다. 혼자 돈을 벌어서 고등학생 딸을 앞으로 대학까지 뒷바라지해야 했기에, 이모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신 이모는 저녁이 되면 꼭 어딘가가 아파와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하셨다. 나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모의 몸을 마사지 해 드렸고 이모에게 힘내시라고 긍정적인 말도 해 드렸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시는 이모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이모가 어떤 활동이나 모임에 나가시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하루는 이모에게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이모는 교회에 가신다고 하셨다. 당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이모가 교회에 가시는 주일에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혼자 방에 있으면서 이모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지루하고 심심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이모는, 교회에서 돌아오시면 나에게 성경말씀을 읽어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모가 많이 외로우셔서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모를 더 이해하고 도와드려야겠구나...'하고 생각했다. 밤에 일을 마치고 이부자리를 펴 놓으면 이모는 꼭 성경책을 꺼내 묵상 하셨고, 흥얼거리며 찬송가를 부르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하셨다. 그런 이모를 보고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보이지 않고 참 행복해 보였기에 나는 늘 마음속으로 이모를 응원했다.

이모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거나 적

극적인 전도를 하셨던 것은 아니었다. 또 같이 교회를 다니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모의 신앙은 나에게도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모는 사치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하고 다니는 자그마한 십자가 목걸이가 늘 있었다. 나는 커서 꼭 이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다. 하루는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이모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이모한테 꼭 순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사 드릴게요”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이제 막 10대 초반 소녀인 나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으신 이모는 웃으시며 “너 밖에 없다” 하시고 나를 꼭 앉아주셨다. 그러면 나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모 진짜예요! 꼭 사 드릴 거예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밤마다 웃고 울면서 이모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주셨다는 사실이 신비롭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우연이겠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 (계속)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공개...

[illegible]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중 제3장〉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부대행사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3월 21일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공개되었다. 이 법은 2020년 말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친 것으로, 그간 법이 규정한 세부적 처벌 대상 등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전언을 통해 보도된 정도였다.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의 전문에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TV·라디오·컴퓨터·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콘텐츠 유포·이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외에도, 외제 휴대전화(손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화기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 복사기·인쇄기를 통한 복제 행위도 금지돼 있었다. 대북전단 등을 지칭하는 '적지물'에 불순한 내용이 있는데도 주무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시청·이용·유포하면 처벌되며, 괴뢰글(한국 출판물 등)과 그림, 상

표 등 불순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었다. 법 집행기관 및 단속 기관 구성원이 압수 또는 몰수된 출판물을 유포·이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또한 한국의 출판물이나 음악뿐 아니라 한국식 말투와 창법까지 금지한 조항도 확인되었다.

특히 29조에서는 음란물에 해당하는 '성록화물'과 함께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에게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를 류입, 류포한 경우 최소 무기 로동교화형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법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법에는 그 외에도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언급하는 조항 및 외부 콘텐츠를 유입·시청·유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시의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이 가진 연좌제적 속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 생명권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벌 수위도 '많은 양을 유포'하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 등 매우 자의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죄형법정주의까지 어기고 있다"면서 이 법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했다. (참고: 3월 21일, 언론보도 종합)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저자: 오혜선
출판사: 더 미라클
발행일: 23년 1월 5일
가격: 18,000원

북한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폐쇄적이고 정보가 제한된 지역이다. 그러한 북한에서도 특별히 그 지도층과 엘리트에 대한 정보는 더욱 희귀하다. 탈북자 중에서도 지위가 있었거나 권력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일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에 대한 책은 북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끌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오늘 소개할 책,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이 책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오혜선 씨가 쓴 회고록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오씨는 북한에서 핵심계층으로 꼽히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 가문’의 딸이다. 그의 아버지가 김일성정치대학 총장을 지

낸 오기수고, 작은 할아버지는 김일성 전 주석의 항일 빨치산 전우인 오백룡이다. 그러다 보니 태영호씨의 망명 당시에 부인인 오씨의 배경에 많은 관심이 모아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성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왜 위험을 무릎쓰고 탈북을 결심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책의 내용을 찬찬히 따라가면서 느껴지는 인상은 먼저 북한 엘리트의 삶도 서민들이 겪는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단하다는 점이었다. 오혜선씨는 책에서 자신의 북한 생활 이야기를 상당히 세세하게 털어놓고 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 등 글의 흐름을 따라가보면 저자는 저자 스스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분명 특권층으로서의 좋은 대우를 누렸다.

일반 서민은 꿈꿀수 없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생활이 어렵기는 했지만 일반 서민들과 같이 굶주림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이전에 고위직이었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것에만 의지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던, 말 그대로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저자의 가족도 아버지가 권력에서 밀려난 가운데 생활에 상당한 곤란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제난이 북한 사람 모두가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움이라고 본다면 엘리트로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는 무상한 권력과 일상적인 숙청의 위협이었던 것 같다. 저자가 추억하는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 또 알고 지낸 고위층 인사들 중 상당수가 몇 년 뒤에 숙청되고, 처형되고, 추방당하고,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서술이 이어졌다. 저자는 담담하게 적어가고 있지만 출세한 엘리트라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은 그들의 삶을 항시적 긴장과 두려움에 놓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실 이는 김씨 일가로 상징되는 최고지도자의 의도가 반영된 공포 정치 시스템일 것이다.

고위 외교관의 아내로서 접하게 된 바깥 세계의 모습도 저자의 가치관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저자는 좋은 토대와 성분 속에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남편을 따라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침병이라는 서방의 국가들이 더 좋은 복지로 국민을 보살피고 자신도 혜택을 보았는데,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북한은 오히

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러니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자유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반면 돌아온 북한은 여전했다. 아니 전보다 더욱 어렵고 불편했다. 나라 살림은 여전히 어려워졌고 어려운 나라 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가 떨어지지만, 그 제안이 조금이라도 위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수용은 커녕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는, 발전 없는 시스템도 여전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성과와 상납의 수준은 높고 이를 정상적인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간부들은 한숨 쉬지 않는 날이 없었고 불법적인 사업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사회가 바뀌고 시장이 활성화되자 자녀들을 돈 잘버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 경쟁은 치열해졌고, 그 와중에 충분한 배급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은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짐에 따른 기대도 있었지만 공포정치와 숙청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보기에는 좋은 평양의 아파트이지만 겨울 추위와 부족한 난방에 바람이라도 막고자 사람들은 아파트 배란다에 창문을 설치하고, 그것을 본 김정은이 “보기 좋지 않다, 중국식이다”라고 한마디 하자 다시 철거해야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곳이었다.


저자가 묘사하는 북한은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없는 나라였다. 그러한 불안감과 소망의 부재속에서도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저자가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자녀 때문이었다. 창의를 억압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언

제고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곳에서 자녀를 기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방송 화면을 통해 상당히 발전된 평양의 거리나 고층 아파트를 보았고, 동시에 여전히 낙후된 국경지역 시골의 풍경을 보며 지방의 서민들과 평양의 엘리트들간의 괴리를 관찰해왔다. 누가 보더라도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분명 현 체제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기에 현 체제의 주요 지지자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저자는 북한에서 김 씨 일가를 제외한 ‘특권’의 향유자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미 탈북까지 한 저자의 입장에서 서술이기에 현재 북한의 엘리트들이 모두 저자와 같은 어려움과 딜레마로 고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경험한 살얼음판과 같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제3자의 관점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특권의 향유자로 표현한 김 씨 일가는 만족하고 평안할까? 잦은 숙청을 자행하고 핵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보인다.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나라, 평안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금의 북한인 듯 하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어온 자원과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저자가 북한에서부터 신을 찾고 기도했던 기억을 언급하는 부분도 흥미로웠다. 탈북 이전부터 저자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신을 찾았다고 한다.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여럿 일어나다 보니 신적

인 도움을 찾게 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탈북 이후에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책은 담담하고 쉬운 문체로 쓰여져 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 엘리트의 생활을 엿본다는 흥미 요소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 보는 북한에서의 엘리트로서의 삶의 궤적과 충성의 의미에 대한 고민 등 생각할 거리도 담고 있다. 저자가 이미 탈북한 사람이고 또 특정 정치인의 아내로서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독자도 있겠지만, 책 자체로 볼 때에는 비교적 부담없이 읽고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해본다. 

-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움직임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각종 미사일 발사에서부터 ‘핵반격가상종합훈련’ 및 수중 핵어뢰 발사 등 다수의 군사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한미의 전반기 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와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이는 이러한 군사 움직임은, 연 초 북한의 행보를 통해 일정부분 예상되었던 부분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됨을 경외하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이 기독교 박해를 위한 제도와 기관 운용을 멈추고 종교 박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반동사상문화법의 전문이 북한인권 기관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의 전문에 따르면 알려진 바와 같이 한류 등의 외부 사조에 대한 단속, 처벌 조항이 있음은 물론이고 ‘미신’이라는 용어로 표현된 종교 서적, 영상물, 사진, 그림 등을 보거나 소지한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유입과 배포의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는 등 매우 극심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관련 법규와 단속 조직을 지속 확충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의 통제와 억압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고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일상의 말투와 용어까지 단속의 대상으로 삼으며, 국가적 어려움을 더욱 강력한 통제와 억압, 박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억눌림이 북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가 아닌 회복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극심한 박해로 인해 지하에서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2월에 개성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여 고위급 간부가 2차례 급파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기아에 시달리는 절량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식량 및 농업만을 주제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외화가 투입되는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은 뒷전에 물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과 취약계층에게 경제난은 더욱 치명적이며, 취약계층 중에는 적대계층으로 취급받는 기독교인의 후손이나 친척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5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이 북한 사회에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관광 산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북한은 여러 관광 시설

- 을 건설하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외관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금강산 재정비도 본격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 산업은 많은 외부인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방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애쓰게 된다면 현재의 핵 개발과 군사적 도발 대신 평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관광 산업 개발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6 세계 교회의 북한 선교 참여 확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외화 벌이를 위한 해외 각지로 노동력 수출을 이어가고 관광 산업도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활동은 당국의 외화 벌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교적으로는 북한 사람과의 접촉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제 3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북한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교회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일깨우고 북한 선교로 동원하는 일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해외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북한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적을 초월한 교회의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8 2023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3월 20일부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선교학교는 총 17주 과정으로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모임, DMZ기도여행과 비전트립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께서 이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학교의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각 순서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북한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옵시요. 또한 북한 선교에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E-mail : 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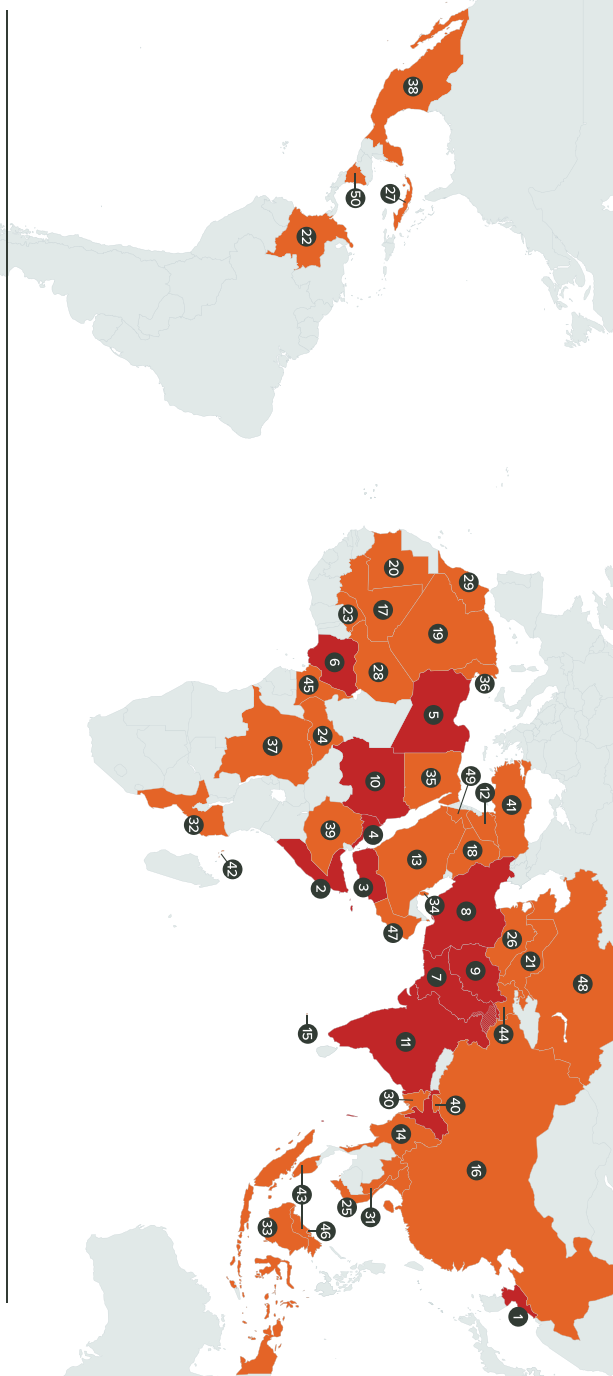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3년 3월 31일

WORLD WATCH LIST 2023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 박해지도



ABOUT THE LIST

월드와치리스트에 관하여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실태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각 국가 별 박해지수는 폭력적 압박 정도를 분석한 하나의 포인트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는 삶의 5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 폭력
- 개입영역
- 가정영역
- 공동체영역
- 국가영역
- 교회영역

각 영역별 최고 지수는 16.7이며, 전 영역 지수의 총 합은 100점입니다. 각 국가의 순위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점수 총 합으로 결정됩니다.

박해수준

- 높음 41-60 points
 - 매우높음 61-80 points
 - 극심함 81-100 points
- 순위 내 모든 국가들은 매우높음이나 극심함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리비아	니제르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인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몰디브	중국	말리	이라크	알제리	모리타니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쿠바	니제르	모로코	방글라데시	라오스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튀니지	홍콩민주공화국	멕시코	에티오피아	부탄	터키	코모로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카메룬	브루나이	오만	카자흐스탄	요르단	니카라과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